

고은 불교 대하소설

지옥을 향하여

한 죄 많은 사람이 그가 갈 지옥이 어디인지 알기 위해서 이마에 손 치양(壽陽)을 하고 멀리 바다 곁 트러리 쪽을 향하고 있는 그림이 있었다. 고려말 공민왕이 그린 것이다. 그 그림 속의 바다 곁트러리는 그야말로 수평선 하나 뿐이었는데 그 아래로 바다 빛깔이 점점 짙은 것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18종의 지옥을 약도로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인담이 이 사라져버린 지옥도에 관해서 알게 된 것은 예성강 기슭에서였다. 한 남루한 사람이 "공민왕! 공민왕!" 하고 외위대면서 그 공민왕이 아내를 잃은 뒤 그리기 시작한 극락도와 지옥도가 예성강 일대의 어떤 거간꾼에게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거간꾼을 찾아 다니는 길이었다. 그런데 이미 이 세상을 떠난 민화의 남각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민화로부터 그 남루한 사람 얘기가 나왔던 것이다. "공민왕의 극락도를 찾아다니다가... 나 중에는 지옥도를 찾아다니는 그 때들이 영감은 제 정신이 아니었어" 하는 민화의 말에 남각도 고개를 끄덕였던 일도 인담은 아직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따라 인담을 따라나온 남각이 당선 직후의 빠른 다리를 풀어주면서 "스님!" 하고 인담을 끌고 갈대장사 저쪽으로 가는 것이었다. 인담은 그런 남각이 다시 심상치 않은 것을 알았다. 섬뜩하기까지 하였다.

에 당황하는 것과 동시의 일이었다. 인담은 그의 설법에 대한 기억은 확실하지 않으나 문득 지옥천자에 대한 설법은 기억에 남아있었다. 지난 날 그가 무량사에서 매월당(梅月堂)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는 처사 후월(後月)거사로부터 얻어들은 화엄경 수호품(護好品)의 얘기였다. 지옥의 한 유정(有情) 증상은 전생에 화엄경을 보고 들은 공덕의 힘에 의하여 마침내 그 극고(極苦)의 지옥에서 부처님의 광명을 받아 그 광명과 함께 천상계의 도솔천에 태어나 십지(十地)의 행(行)을 채워서 부처가 될 수 있는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이 그것이었다. 남각이 다그쳤다. "어느 쪽이 스님의 진정이십니까? 지옥이 없다는 쪽입니까? 지옥이 있어 지옥천자가 천상까지 직통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쪽입니까?" 인담은 더더욱 말문이 막혀버리고 말았다. 파도 한 덩어리가 바위를 쳐 엄청난 포말을 뿌려댔다. 인담의 웃이 대번에 젖었고 남각의 등짝도 다 젖어버렸다. 과연 남각의 다그친 질문과 그 사나운 파도 끝의 포말은 한통속이었던지 모른다. 무욕도 선원을 대표하고 있는 인담은 여기서 전혀 무능밖에 내보일 것이 없었다. 그가 서 있다가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 "모르겠네, 남각." "인담스님!" 하고 남각이 큰 소리로 부르



그림 · 조항숙



수미산

32

“지옥에 가려면 지옥에 갈 업이 있어야 가는 것인데... 그렇게도 지옥에 가고 싶으신가”
“여기서 모양만 내고 있을바에는 차라리 지옥이 내 수행의 도량이겠지요”

“죄선을 싫어하더니... 요즘은 잘못도 안아 있다마나...” 하고 걸로 격려하는 말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다. 남각이 그런 인사치레를 순제 무시해버리는 것이었다. “스님! 저는 지옥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인담이 남각의 심각한 말을 눈으로 들켰다. “지옥에는 아무나 가는 곳이겠는가?” 남각이 집요하였다. “언젠가 인담스님께서 설법을 하셨습니까. 역대 조사들께서 다 때려부수어 이제 지옥이 없어졌다고 하셨지요.” “그랬던가.” “그것 뿐이 아닙니다. 다른 설법에서는 지옥이 없어졌다, 지옥이 없다는 말씀 대신 지옥천자(地獄天子)라는 것도 말씀하셨습니까.” 인담이 점점 말문이 막혀가고 있었다. 그것은 남각의 쓰아낸 화살과 같은 눈초리

면서 인담을 일으켜 세웠다. “저는 이런 곳에서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바쁜 증생입니다...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당신이 없다고 하다가 있다고 하다가 하는 지옥으로... 간다 그 말씀입니다...” 인담이 가까스로 한 마디 내뱉었다. 힘이 들어있지 않은 말이였다. “지옥에 가려거든 지옥에 갈 업(業)이 있어야 가는 것인데...” 그때 남각이 바위 밑 소용돌이쳐대는 파도에 대고 인담을 밀어넣을 듯이 인담을 몰아세웠다. “스님을 이 바다속에 내던지면 그 업으로도 지옥에 갈 수 있겠지요.” “그렇게도 지옥에 가고 싶으신가?” 인담이 여기서부터의 말투가 남각을 달래는 쪽으로 간질해졌다. “여기서 모양만 내고 있을 바에는... 차라리 지옥이 내 수행의 도량이겠지요.” 남각이 이어서 말을 잇는다.

“이제 작무시간입니다. 스님도 저도 몸동여리를 돌려 일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담은 남각의 치열한 정신의 압력에 의해서 좌어붙었던 그 자신의 몸과 마음이 겨우 풀려날 수 있었다. 그런데 남각은 작무시간에는 일에 열중하는 한 사람일 뿐이었다. 그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남의 마음이나 세상의 일을 골질 읽고 있는 우뇌조차도. 오직 인담만이 풀 죽은 듯처럼 그의 마음이 착잡하였다. 하지만 그는 그런 내색을 보이지 않고 한마디 내뱉었다. 이런 시간에 전혀 걸맞지도 않은 말이였다. “...나는 백마강 부여팍에서 출토된 불광 무늬 벽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부여 송림사 마당에서 출토된 연꽃무늬 수기와 파쇄도 보았어요... 그 백제의 솜씨는 어디에 내놓아도 견줄 바가 아니지만... 그런 솜씨를 다 없애버린 나라의 멸망이 차라리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말

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 우녀가 저쪽 남새밭을 일구다가 이쪽에 대고 말을 보내는 것이었다. “그 봉황도 그 연꽃도 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말 저 말이 왔다 갔다하게 되었다. “여기에 있다면 누가 봉황입니까? 누가 연꽃입니까?” “연꽃이야 합덕스님 아십니까?” “하하하 여기도 공부하는 곳이 아니군... 미색(美色)에나 기울어지고 있으니...” “그렇다면 관세음보살상은 그것이 미색인가? 아닌가?” “참으로 딱합니다. 어찌 미색이고 아니고 나누는 일이나 합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헛것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연꽃을 노래하고 연꽃으로 떠오르는 아리따운 여인을 말해야 8만대장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과연 화엄법제라도.” “자 구업(口業) 그만 지으시고 신업(身業)을 열심히 지으십시오.” 이 말은 이제까지 주고 받은 말 밖에서 인담을 다룬고 있던 파천이 이런 설왕설래를 채근하는 것이었다. 이런 작무시간에는 아무런 말도 나누지 않고 일에 충실하는 것도 좋으나 일이 고단할 때는 서로 말장난이라도 나누는 것이 큰 힘이 되어주는 것이다. 왜 조선 8도의 빈 곳 없이 인민의 가요가 전해오겠는가. 그것은 시어머니에 시달리는 며느리의 설움을 스스로 달래는 보리밭아

“...내가 가야할 곳은 오직 지옥이구말구... 내가 일찍이 극락을 버린 바가 역력하지만 이제는 그 극락을 위해서라도 극도로 고통스러운 곳에 가서 살아야 하구말구... 그 8대지옥 8한지옥에서 두루두루 살아보지 않고 어찌 부처가 될 수 있으며 어찌 극락에 왕생할 수 있겠는가”

짙는 노래였고 아주 험악한 무정발을 일구는데서 스스로의 힘을 풀기위하는 노래였다. 그도 아니거든 천리 밖의 성 쌓기나 아문(衙門)의 요새등을 쌓기에 동원된 남장네들의 그 죽기보다 삶은 가난한 노역 가운데서 스스로 견디어내는 노래였던 것이다. 무욕들이 땅의 농우성이므로 비 맞으며 도롱이 쓰고는 가운데서 나올 줄 모르고 있었던 적이 없겠는가. 누군들이 하늘 아래 땀방울 먹어 숨 막히는 여름의 풍발 기을 맨 적이 없겠는가. 거기에는 언제나 노래가 있어야 한다. 누군들이 땅의 지향없는 길을 떠나는 나그네의 심사(心史)가 되어보지 않은 적이 있겠는가. 거기에서 아리랑고개를 넘어가는 노래 아리랑이 이곳 저곳에 봄의 흰 새리꽃인듯 가을의 울나무 붉은 단풍인듯 넘쳐서 들러온 것이 아닌가. 무욕들의 수행자들과고 해서 군소리 한 마디 없고 말장난 지워버린 경건한 몸으로만 그들의 작무시간을 보내야 하겠는가. 이러저러 일을 마치고 연장을 틀어 씻어 간수하며 연장에게 “자네도 수고도 많았네.” “자네 덕분에 내 입에 풀칠을 해서 공부가 되니 고마운 노릇이 아닐 수 없네”라는 덕담을 남겨 주었다. 연장에도 들

는 귀가 달려있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손발을 씻고 부엌으로 가거나 아예 갈대장사 모퉁이 남정네 찬물 욕장으로 가서 몇바가지의 물을 알몸에 틀어부어 목욕을 마치기도 하였다. 밤의 화산시간에는 남각이 아예 방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최근 묵인된 일이기도 하였다. “름!” 하고 남각의 기척이 파도소리가 어디로 가 있는 사이 방안까지 들리는 것이었지만 이미 방안의 입정(入定)에는 림이고 캄이고 들릴 까닭이 없어야 하였다. “름!” 남각은 뜻밖에 잔잔해진 파도의 바로 위에서 오라카락 하고 있었다. “가아하리.” 파도 한 자락이 기슭의 바위에 거어오르지 못하고 물러나고 있었다. 하늘에는 옛새달인지 이렛새달인지 칼로 매섭게 깎아놓은 것처럼 중천에 박혀 있었다. “가아하리.” 라고 깊은 한숨과 함께 내뿜은 이 한 마디에 그 무엇이 달려서 함부로 대답하였는가. 그의 주나 대략뒤 따위 잔잔송은 물론이거니와 한두마리 나무가지의 부렁이도 제 모습을 숨기고 있을 따름이었다. “...내가 가야할 곳은 오직 지옥이구말구... 내가 일찍이 극락을 버린 바가 역력하지만 이제는 그 극락을 위해서라도 극도로 고통스러운 곳에 가서 살아야 하구말구... 그 8대지옥(八大地獄-八熱地獄) 8한지옥(八寒地獄)에서 두루두루 살아보지 않고 어찌 부처가 될 수 있으며 어찌 극락에 왕생할 수 있겠는가.” 남각의 정신세계는 바야흐로 어느 수행자보다 뜨거운 것이었다. 신라의 한 뜨거운 사나이 지귀(志鬼)가 여왕 선덕을 사모한 나머지 스스로 불이 되어 그 불에 타서 죽은 일이 있지 않은가. 남각은 부처를 그토록 사모함으로써 지옥의 화탕(火湯)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이었다.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에서 찾으십시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부처님 말씀

친필 작품

보시하는 마음으로 써드립니다.

268-5702 남경서적

연꽃방

서울시 동구 강지동 110-43 전화 738-3933 (자택) 934-1748

승도인쇄 스티커 전문

불심과 공익정신으로 정성을 다해 제작합니다

문의처: (02)273-1239 대표 이강화 합장

단청·불상·탱화·개금

주 소: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28-18 6층 4번 문의처: 468-8329 호수거: 012-307-8329 박석연 합장

부전스님을 모십니다

참신하고 염불에 능한 스님을 모시고자 하오니 연락바랍니다.

불심포교원 주 소: 부산시 동구 초량2동 484-10 전화: (051)465-5100, 467-5200

연꽃잉어화

전문작품

연꽃잉어화는 옛부터 집안의 생기와 영성의 활기를 가져오는 길화로 전해오는 바 생동감을 주는 신작 종이 도둑형 화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인(宇濤)화실 서울 용인구 청피리길 173-1 전화 (02)3373-0081 온라인 국민은행 남영지점 823-24-0171-328(후인)

진여원

불교서적 및 용품 도·소재, 초·항·촉대, 각종 유가 도자기, 열주, 목탁, 태피스트, 개금, 단청, 불상, 탱화, 승복, 법복

서울시 중구 강지동 110-43 전화 739-2450

법화경 강좌

강사 최공덕 스님

문의전화 부산: 645-6224 대구: 952-8711

각종 염주 주문생산 전문

(사찰용, 사진 등 삼입 가능)

단주, 합장주, 목걸이, 팔찌, 차걸이, 주발, 열쇠고리 등

한남상사 Tel: (02)795-4083, Fax: (02)792-9659

노고당

733-8743

지방은 조각하여 우송하겠습니다.

불심포교원

주 소: 부산시 동구 초량2동 484-10 전화: (051)465-5100, 467-5200

연꽃잉어화

전문작품

연꽃잉어화는 옛부터 집안의 생기와 영성의 활기를 가져오는 길화로 전해오는 바 생동감을 주는 신작 종이 도둑형 화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인(宇濤)화실 서울 용인구 청피리길 173-1 전화 (02)3373-0081 온라인 국민은행 남영지점 823-24-0171-328(후인)

첫솔의 기술혁신 국제 특허품

Circle-B® 회전첫솔

과우로만 첫솔화하세요. 상하 또는 돌려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편판매도 합니다. 5개 = 12,500원 10개 = 24,000원

온라인: 농협은행계좌 098-01-239051(서울상사) 전화: (02)556-3076-7 팩스: (02)556-3078

판음손

이런이 프로그램을 위한 불교용품, 불교서적 판매 스님을 위한 선별화, 영주 열기 주문제작 비디오, 카세트, 앨범집, 단체용품 기획제작

720-1147(~8)

한글반

년2회 실시 4월·8월

회원 모집 중

국교 졸업과정 한글반·재수생·직장인·주부반

중학 졸업과정 ○ 영계 풀이판 해설 '강의해설교재', ○ 학교수업식 '강의 녹음' 학습

고교 졸업과정 ○ 철저한 1:1 '답임 관리제', ○ 대학 졸업과정 ※ 한글 속성 2개월 일제 특득 가능

72세 할머니가 본 제도를 이용하여 2년 만에 중졸·고졸과정을 거뜬히 마쳤습니다.

저는 어려운 가정에서 국민학교를 2학년 다니다 중퇴한 것이 사회에 나와서는 두고두고 학력차이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마침 대한교육평가원에 노크하여 94년 4월 4일에 등록했고 약 두 달후인 5월 21일에 국민학교 졸업과정 시험인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했으며 다시 중학교 과정의 공부로 시작하여 3개월후인 8월 19일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희망에 차서, 고등학교 졸업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전하도록 힘이 되어준 대한교육평가원에 감사드리며 부족하나 마저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대한국교육평가원 상담전화(비밀보장) (저녁 9:00까지 접수) 02)766-9090

우 110-410 서울 중구 민의동 해운대인삼방길 2층 213호

개인적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하여 학원에 가지않고 가정에서 졸업장을...

한글반 년2회 실시 4월·8월

회원 모집 중

국교 졸업과정 한글반·재수생·직장인·주부반

중학 졸업과정 ○ 영계 풀이판 해설 '강의해설교재', ○ 학교수업식 '강의 녹음' 학습

고교 졸업과정 ○ 철저한 1:1 '답임 관리제', ○ 대학 졸업과정 ※ 한글 속성 2개월 일제 특득 가능

72세 할머니가 본 제도를 이용하여 2년 만에 중졸·고졸과정을 거뜬히 마쳤습니다.

저는 어려운 가정에서 국민학교를 2학년 다니다 중퇴한 것이 사회에 나와서는 두고두고 학력차이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마침 대한교육평가원에 노크하여 94년 4월 4일에 등록했고 약 두 달후인 5월 21일에 국민학교 졸업과정 시험인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했으며 다시 중학교 과정의 공부로 시작하여 3개월후인 8월 19일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희망에 차서, 고등학교 졸업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전하도록 힘이 되어준 대한교육평가원에 감사드리며 부족하나 마저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신영희(72세, 할머니) : 중·고과정(24개월) 박은희(45세, 주부) : 중과정(5개월) 이상수(39세, 직장인) : 중·고·대과정(36개월)

특전: 합격보장 총정리문집제 제공 95년전원출입료(영·수)비디오/교사, 특별제공

원저원 학습관리! 전화접수(비밀보장 PM 9:00) 기초(영어,수학)가 약한 분을 위한 별도 해설집 제공

(수신자 부담) 크로바서비스 080-023-4600